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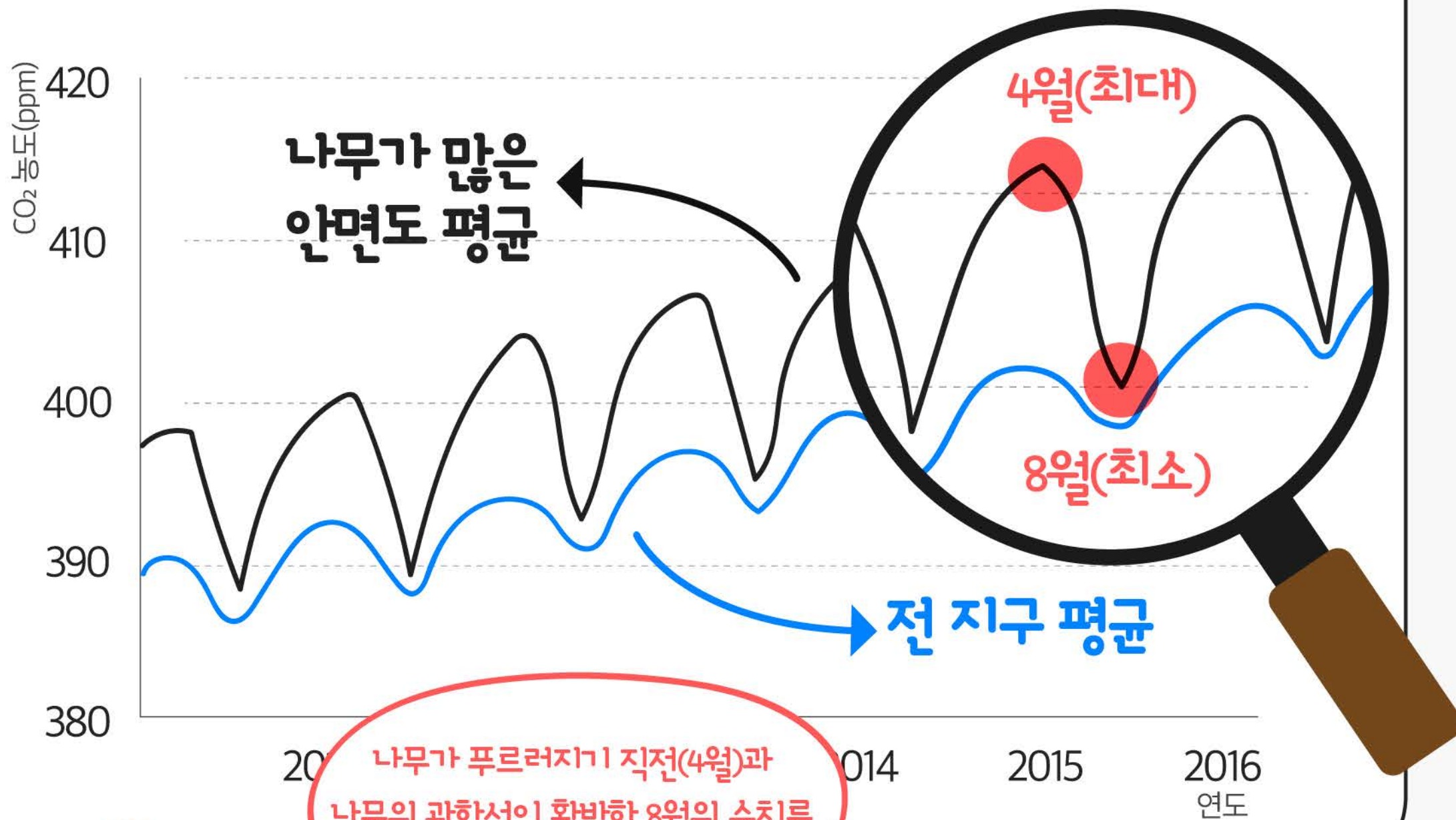


탄소 먹는 나무를
우리 모두 심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는 상식!
그냥 느낌일까? 근거가 있는 사실일까?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소에서 관측한 결과

이산화탄소 월평균 농도



나무가 푸르러지기 직전(4월)과
나무의 광합성이 활발한 8월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4월과 8월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이유!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

이산화탄소 농도차가

큰 안면도 VS 작은 하와이



나무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
나무가 많은 곳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
농도가 낮아집니다.

광합성을 하는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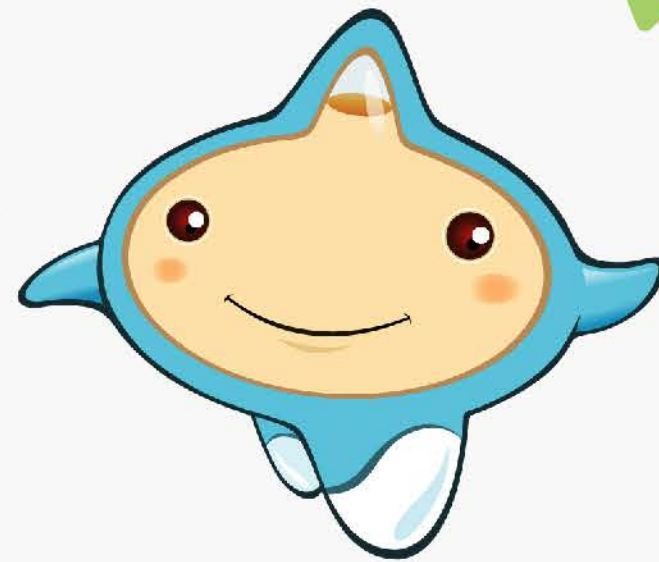
사실!



파리협정(유엔기후변화협약, 2016.11)에서는
‘산림’을 온실가스 감축에 긴요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보전 및 증진의 필요성 강조**

우리나라의 경우,
44.4백만 톤의 탄소를
산림, 농경지 등이 흡수했어요!

*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런데,

이번 3월 말 고성 산불은 40ha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는 **연간 4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나무가 사라진 것과 같대요.(ㅠㅠ)

* 산림청 보도자료, 2018.3.28



나무를 심어 배출된 탄소를 줄이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감시를 통한 지구 지키기
기상청이 함께 합니다.

탄소를 줄이면 돈도 벌 수 있다고?

그 이유는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신청!



돈을
벌 수 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어요!

